

# 金山寺五層石塔

## 重創記

黃 壽 永

### I

전북 金堤 母岳山 金山寺는 국내의名利로서 新羅의 創建이라 전한다. 그리하여 眞表律師의 住錫과 後百濟王 甄萱의 幽閉사실 등이 史記와 遺事 등 문헌에 전하고 있으나 現存하는 伽藍像設로서는 오직 高麗前期의 石造物과 朝鮮後期の 法堂建物を 남기고 있을 뿐이다. 이곳에서 논의하려는 金山寺 五層石塔은 같은 松臺위에 建立된 스투파形 石造舍利塔과 더불어 해방후에 이르러서는 高麗初期의 작품으로 추정되어 왔다. 이같은 麗初說에 대하여 기왕의 논의는 日人學者 關野貞·天沼俊一 등에 의하여 新羅末期作으로 추정되었고 그 創建人物로서는 甄萱를 들어 설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곳 石造物에 대한 이와같은 羅末說에 대하여 일찌기 異議를 제출한 本은 又玄 高裕變身生이었다. 生身은 최후의 유고인 「韓國塔婆의 研究」<sup>2)</sup> 各論三七、「金堤 金山寺 舍利塔 및 五層石塔」條에서 「高麗塔婆 形式과 통하는 特色을 갖고 있다」하였고 그중 이탑의 相輪을 들어서는 「특이한 유례로서 一三세기 中葉이래 元朝塔婆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으며 또 이塔 基壇甲石에 대하여서는 「下代 類廢期の 修補」라고 하여서 이 석탑에 거듭 重修가 있었던 사실도 지적하였다. 이와같은 生身의 논의에 대하여서는 그후 다시 異說이 없었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高麗初期說이 그대로 행하여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비추어 一九七一年十一月에 이르러 이 石塔의 해체수리가 있었고 그때 塔內에서 다른 각종의 舍利具와 함께 紙本墨書의 『母嶽山 金山寺五層石

塔重創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매우 多幸한 일이었다. 舍利具의 전모에 대하여서는 따로 관계자료의 정비를 기다려 발표되어야 할 것이나 우선 이곳에서는 그 重創記의 全文을 소개하고자 한다.

### II

이 重創記는 길이 一九五·五cm, 幅 三六·五cm의 楮紙에 楷書로 墨書되었는데 本文의 字徑은 一·五cm이다. 全文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母嶽山金山寺五層石塔重創記

夫此寺者伽葉佛時古基王泰祖重興國

寶第一禪刹之最也年久而傾危頽圯大歷

元年丙午歲眞表律師勸善檀緣彌勒大

殿三層丈六三尊鑄成及與諸殿諸僚俱

排矣像季已還道術既裂明心之士妄認

緣塵爲物所轉修善作福者今已久矣越

庚辰辛巳年間

世祖大王朝重興佛法古基禪刹重修教旨

板榜于時同盟善發比丘信青學虛竺文戒

闡了明覺空覺林覺梅祖梅敏休等奉

教勸善檀那說法殿爲主諸殿諸僚十餘位

造排丹雘畢矣又有五層石塔傾危久矣

幸時幸人社長朴仲延社長金致敬尹同僧

海山僧白忠了明等善承

德原君懿旨勸善念佛社長同結香徒萬餘人

及與善男信女千餘之徒同發善心願捨珍財

命工求材壬子九月十五日赴役同月二十五日

破塔時異香馥郁丈六出汗瑞氣盤空塔內

舊標釋迦如來舍利五枚定光如來舍利二枚分身一枚并三枚

鑿筒藏置開出萬人致敬右舍利壬子十一月十五日還藏塔中又了明願佛鑄像學有影佛

鑄像兼藏塔中 右塔昔書載錄太平興

國四年起始太平興國七年壬午歲畢造

焉與諸縉流社長化主施主記于后列

弘治五年十一月 日誌

施主司果金允崗

大功德主德原君

行金溝縣令柳潛

筮仕郎金應商

知事化主前月南寺住持大禪師學虛

知事前興國寺住持大禪師竺文(外僧俗約二百名)

이와같이 이 石塔重創記는 本文이 二六行이며 末尾에 施主이와 僧俗



圖 1. 金山寺五層石塔

母報山金山寺五層石塔重創記  
 夫此寺者佛刹古基三春報身之  
 寶第一禪刹之宗也年久而傾危賴  
 七帝為本歲實未詳師無善種願粉大  
 殿三層文六三尊鑄沐及典諸殿諸像俱  
 排天像季已還道術既裂崩心之士安認  
 緣塵為物所轉修善作福者今已久矣  
 庚辰年巳年閏  
 世祖大朝重興佛法古基禪刹重修 教旨  
 板樹于時同盟善哉比丘信青學虛竺文  
 開了明覺空覺休覺極 祖格教休等奉  
 教勸善權辨說法殿為主諸殿諸像十餘位  
 造排丹羅畢矣又有五層石塔傾危久矣  
 幸時幸人社長朴仲運社長奎致散戶同僧  
 海山僧了明等善承  
 德原君勸告為善念佛社長同結香徒萬餘人  
 及興善男信女千餘之徒同費善心願將  
 命以本村壬子九月十五日(附後同)二十五日  
 破塔則異者魏解文六出汗瑞氣藍空塔而  
 日標輝迎如未舍利五枚定光如未舍利二枚  
 新前藏置開出萬人致敬右舍利壬子十一月  
 十五日還藏塔中又了明願佛鑄像字者影佛  
 鑄像兼藏塔中 右塔昔書載錄太平興  
 國四年起始太平興國七年壬午歲畢造  
 焉與諸縉流社長化主施主記于后列  
 弘治五年十一月 日誌  
 施主司果金允崗  
 大功德主德原君  
 行金溝縣令柳潛  
 筮仕郎金應商  
 知事化主前月南寺住持大禪師學虛  
 知事前興國寺住持大禪師竺文(外僧俗約二百名)

圖 2. 金山寺五層石塔 重創記

의名單이 달려있다. 그리고 本文의 末行에는「弘治五年十一月」이라 있어서 이때 重創記가 이곳 金山寺 五層石塔의 改修를 따라서 作成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해는 朝鮮 成宗三年 壬子(一四九二)로서 지금부터 四八〇餘年前이다. 그리하여 이해 九月에 石塔重創이 착수되어 그후 二個月을 지나서 十一月 十五日에 다시 舍利具 등이 還藏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바로 이때에 重創記文이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이 石塔重創記의 初頭에는 金山寺의 前歷이 있어 眞表律師에 의한 三層殿과 丈六三尊의 造成 그리고 庚辰辛巳間(世祖 五年) 一四六〇(六一)의 重修 사실이 이에 관여한 승려들과 함께 기록되고 있다. 이에 있어서 이곳 五層石塔에 대한 記文이 보이는데 이重修에 관여한 社長 朴仲延 이하 僧俗名이 있고 다시 德原君을 비롯하여 香徒 萬餘人과 善男信女 千餘之徒가 善心을 同發하고 珍財를 願捨하여 命工求材하고 壬子年 九月에 赴役하였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후 十日만인 同月 二十五日에 破塔하였는데 이때 祥瑞가 있었고 塔內에서는 釋迦・定光 兩如來의 舍利가 鎗筒에 장치되어 있어서 萬人이 致敬하였다. 그후 十一月 十五日에 이르러 塔中에 다시 장치하였는데 이때 새로 了明과 學有 二僧의 願佛을 함께 奉安하였다.

그런데 이곳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같은 重創記 末尾에 이르러 이五層石塔의 創建年代를「昔書載錄」이라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한 사실이다. 이에 따르면 金山寺五層石塔 創建의 起工과 그 畢成은 다음과 같다.

起始 大平興國四年 高麗景宗四年(九七九)

畢造 大平興國七年 壬午高麗成宗元年(九八二)

전후 四年에 걸친 工期로서 이五層石塔이 造成된 사실은 이와같은 重修를 기록한 後代의 文書에 의하여 새롭게 추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石塔의 年代에 관한 上述한 後百濟 甄萱說보다도 약 半世紀가 늦고 따라서 이石塔은 그와 無關임을 알 수가 있다. 동시에 이石塔과 나란히 安置된 舍利塔에 대한 推定年代(고려 慧德王師의 金山寺住

錫期 一〇七九(一〇八四)보다도 꼭 一百年이 앞서고 있다.<sup>③</sup> 이와같은 五層石塔에 대한 새로운 年代推定은 이 重創記文과 同伴된 舍利具<sup>④</sup>에 대한 考察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朝鮮 成宗代에 이루어진 이石塔의 解體重修 때 마련된 文書속에 이만한 初建年代를 함께 明記하여 준 것은 이석탑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하여 多幸이다. 이같은 造塔記文類가 매우 稀貴한 실정에 비추어 새 資料의 수습은 고마운 일이다.

〔註〕

① 關野 貞·朝鮮美術史

이곳에서는 비단 松臺의 五層石塔뿐 아니라 山內屬院에서 移建한 六角多層塔도「後百濟 甄萱이 造成」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것은 東國輿地勝覽 卷三四 金溝佛宇 金山寺條의「在母岳山 後百濟甄萱所創」이란 것을 따랐을 것이다. 그러나 史記·遺事등에서는 그의 幽閉사실만을 전하였을 뿐이다.

② 高裕燮·韓國塔婆의 研究(新版)(一九七五年 서울 同和出版社刊)

이곳에서 産生은 이舍利塔의 年代를 이와같이 추정하면서도 이五層石塔에 대하여서는 확실한 年代추정이 없고 다만「開城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려塔婆形式과 통하는 特色을 갖고 있다」고만 하였을 뿐이다.

③ 上註(2) 韓國塔婆의 研究(新版)

④ 一九七一年 十一月 十三日부로 全北知事로부터 文公部長官앞으로 전문으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때에 발견된 品目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발견자는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孟仁在氏이다.

- 一、金銅製觀世音菩薩像 三點(높이 三〇cm 一點 높이가 十五cm 二點)
- 二、金銅製毘盧舍那佛立像 一點(높이 十二cm)
- 三、金銅製金剛力士 一點(높이 五cm)
- 四、金銅製地藏菩薩像 一點(높이 七cm)
- 五、五層石塔模型(靑銅) 一點(높이 七cm)
- 六、葉錢 七점(조선동본)
- 七、銅製舍利盒(水晶구슬 琥珀자기 一組등) 三點
- 八、重創記(이조 成宗三年) 一枚 計 十九點

(동국대학교 박물관장)